

# “미래 위한 투자”... 롯데, 디지털 전환 주도 ‘인재 육성’ 속도



임직원 위닝 스피릿 내재화 나서  
온라인 해커톤 대회로 채용 특전  
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롯데는 인재경영에도 힘을 쏟고있다.

롯데가 미래 성장의 동력인 우수 인재 영입 및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우수인재 대상으로 회사 및 직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수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구성원들의 ‘위닝 스피릿’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롯데 인재육성의 산실인 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를 재건축하고 있다.

### ◆디지털 전환 주도할 IT 인재 확보에 총력

롯데는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외부 DT·IT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롯데는 DT·IT 지난 5월 연세점 빅데이터 직무 수시 전형 모집을 시작으로 상시 채용에 나

섰고, 하반기에도 DT부문 신입사원 채용을 시행했다. 모집 분야는 DT, AI 엔지니어, IT, UX 등 회사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직무 중심이다.

또한 롯데는 DT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그룹 채용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한달 간 국내 대표 온·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전문교육기관인 ‘멋쟁이 사자처럼’과 함께 ‘온라인 해커톤’ 대회를 진행했다. 전국 49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멋쟁이 사자처럼’ 8기 회

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참여자들은 ‘롯데의 유통, 물류, 제조 서비스 중에서 불편한 부분 개선 혹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웹 서비스로 구현했다. 롯데는 수상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함께 2022년까지 롯데그룹의 신입 채용 개발직무 지원 시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면제를 해주는 채용 특전을 제공했다.

### ◆위닝 스피릿 내재화를 통한 변화 주도적 대응

롯데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임직원의 위닝 스피릿 (Winning Spirit) 내재화에 나서고 있다. 위닝 스피릿은 모든 임직원이 기업 고유의 가치관을 공감하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지를 말한다. 지난 1월 ‘2020 상반기 LOTTE VCM’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닝 컬처 (Winning Culture)가 조직 내에 자리잡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롯데는 지난 5월,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해 위닝 스피릿을 임직원에 심는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이에 앞서 롯데 기업문화위원회는 기업 내 위닝 스피릿 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롯데 임직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진단을 진행해 구성원의 자발적 성과 창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각 계열사 상황에 맞춰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인 ‘위닝 룰’을 제정하고, ‘위닝 코칭 평가 항목 도입’, ‘프로젝트 단위 크로스셀 조직 운영’, ‘Small Success 보상 체계 구축’ 등 실천 과제 488

개를 수립해 각 계열사별로 진행하고 있다.

### ◆미래환경에 맞는 최신학습환경 구현

롯데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인 인재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핵심인재 육성의 요람인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를 미래 인재를 위한 창의·혁신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롯데는 오산캠퍼스를 국내 최고의 인재육성 시설로 조성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진행 상황을 챙기며 “오산캠퍼스를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워낼 최고의 시설로 꾸미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는 1993년 1월 개원한 이래, 신입사원 교육부터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직급별 교육,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하며 롯데 인재 육성의 중추 시설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8월초부터 오산 캠퍼스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中企 울리는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개정 아모레, 뷰티 MCN기업 ‘디밀’에 30억 투자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 포함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규정 신설 수탁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기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더욱 강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2월12일 당시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서다. 우선 비밀유지계약(NDA)이 정착되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번 개정안엔 중소기업(하청기업)이 대기업(원청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청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조만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도급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선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시켜놓고 있었

다. 또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에 대한 손해 규정이 없었던 만큼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위태양’이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AMORE PACIFIC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뷰티 전문 다중 채널네트워크(MCN) 기업 ‘디밀’(디퍼런트밀리언즈)에 3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7일 전했다.

디밀은 250여 명의 파트너 크리에이터와 함께 뷰티 콘텐츠와 커머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미디어 스타트업이다.

젤라, 우린, 행잇뷰티, 재유, 제제, 하코냥 등의 파트너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국내외의 500여 개 브랜드와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하며 5억부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뷰티 MCN 외에도 이커머스 플랫폼인 ‘디바인(dVine)’, 자체 브랜드 ‘아월즈(Hours)’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아모레퍼시픽의 NGI디비전장 이영진 상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전략적 투자자(SI)로서 뷰티 인플루언서 콘텐츠와 커머스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MCN 가운데서도 뷰티 영역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디밀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주 디밀 대표는 “뷰티 산업 내에서 1인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콘텐츠 커머스와 자체 브랜드를 결합한 버티컬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미미 기자 silverbeauty@

## 티원모빌리티와 통합 택시 호출 플랫폼 ‘맞손’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진화된 택시 사업모델 적용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택시 4개단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특화형 택시 호출앱 ‘티원택시’ 운영사 티원모빌리티와 새로운 브랜드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플랫폼과 티원모빌리

티의 티원택시 플랫폼 간에 상호 배치가 가능한 통합 브랜드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통합 브랜드 앱은 마카롱택시 및 티원택시의 회원택시를 모두 아우르는 실시간 택시 호출앱이다. 다만 통합 플랫폼 구축 후에도 각사의 플랫폼은 고객 편의를 위해 지속한다.

이를 위해 KST모빌리티와 티원모빌리티는 공동으로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통합 브랜드 앱을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선진화된 택시 사업모델을 적용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정부가 비상장 기업 등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과세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상장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72%가 ‘과세 반대’를 원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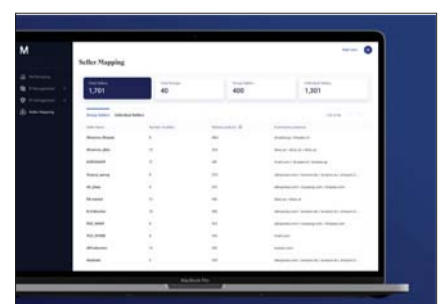
### 마크비전 위조상품 판매자 분석시스템 선택

‘셀러맵핑’ 다수 판매자 연관성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마크비전이 위조상품 판매자 분석 시스템 ‘셀러맵핑(Seller Mapping)’ 기능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커머스 내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여러 개 계정을 사용하거나 온라인상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특정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셀러맵핑’ 서비스는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 및 취합해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다수의 판매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기능이다.



마크비전 ‘셀러맵핑’ /마크비전

마크비전의 보호를 받는 브랜드는 온라인 대시보드에 로그인한 뒤 셀러맵핑 메뉴를 클릭하면 위조상품에 연관된 판매자 별로 하나의 본체로 의심되는 판매자의 수, 적발된 위조상품 수, 이커머스 유통경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